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⑮ 〈아미타삼존내영도〉 ②

▶ 한줄 요약
〈아미타삼존내영도〉는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로 도상이 구성돼 있다. 이는 부처의 본성인 지혜와 자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다. 부처와 보살의 차이 중 하나는 보관의 유무다. 대세지보살의 보관은 무변광으로 장엄돼 있다.



'장엄 에너지' 분출하는 보살 보관

"인간은 이 세상 애욕의 바다에서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가는 것이다."

〈무량수경〉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에는 부처님 눈에 비친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설해져 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저속하고 옹졸하여 하잘 것 없는 세상사에 골몰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툰다. 죄악과 고통 속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생활에 허덕인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애쓰고 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뺏길까 두렵고 닫힌 마음에, 또 재물이 없으면 궁색하고 불만의 마음에 안달한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부족하여, 가지려 애쓰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안절부절한다.

이에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아, 부모와 자식, 형제 간, 부부와 친척 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 미워하고 시샘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인색하게 굴지 말고, 다투지 마라"라고 하신다. 분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원수가 되고, 마음의 독을 품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앙갚음하게 된다.

재물과 애욕, 재앙의 근원

사람들이 평생 가장 갈구하는 두 가지, '재물과 애욕'에 대한 가차 없는 직설이 쏟아진다. "재물 욕심 그만 내고, 애욕으로 얽힌 가족과 화목하라"는 요지이다. 젊은이나 어른이나 재물과 애욕을 탐하는 데 만족 못해 평생을 허덕이고, 미움과 분심으로 몸과 마음을 스스로 괴롭힌다.

"그래도 끝내 덧없고 너절한 이것 단념 못해, 혼미하고 답답한 미망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헤매다가, 아무 의지할 것 없이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는다."

진리의 길을 닦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결국 탐진치에 평생을 휘둘린 채 살다가 죽어, 다시 기약 없는 사나운 윤회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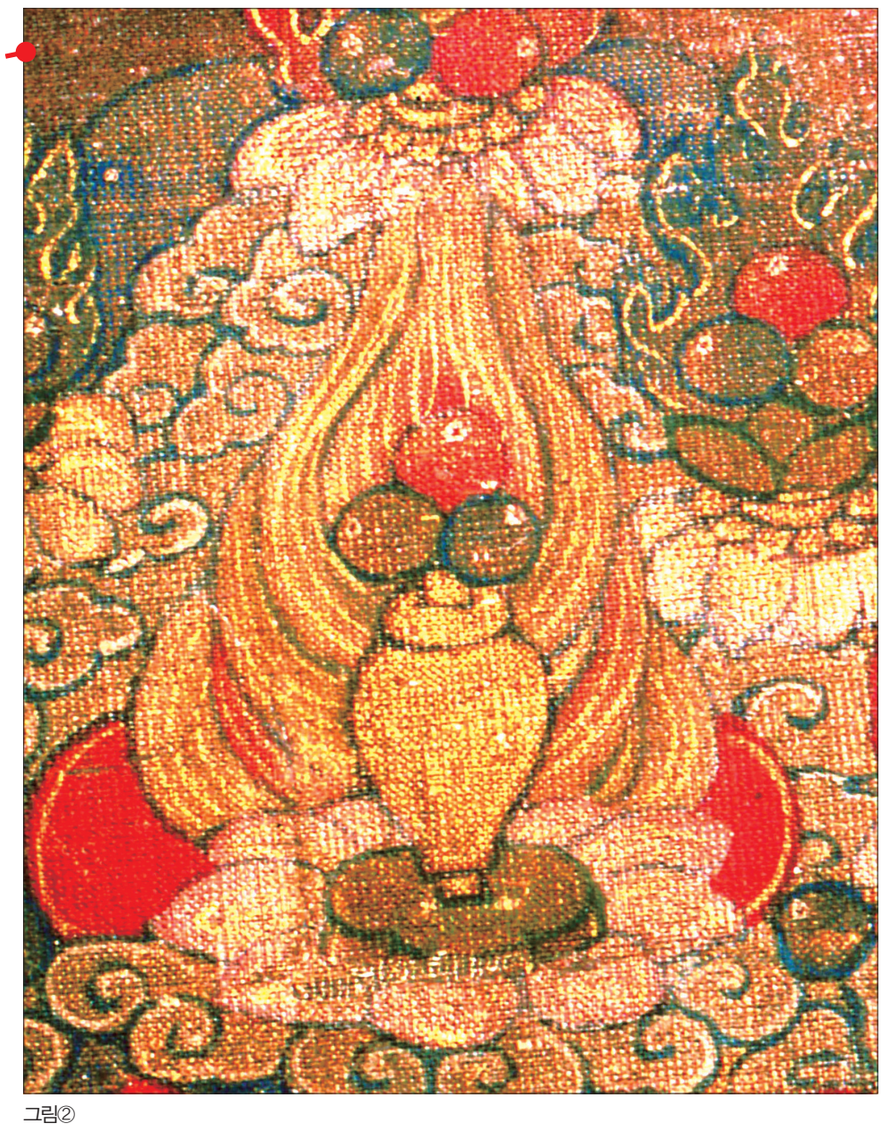
"인간의 재물과 애욕은 아침 이슬 같아서, 모두 덧없이 흩어지고 마는 것. 참다운 즐거움은 거기에 없다. 부처님 법 만났다면,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라!"

진실한 법칙인 윤회와 인과(因果)와 무상(無常)의 도리를 믿지 않고, "삼악도에 떨어져 생사윤회의 고통이 끝이 없으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라고 토로한다. 스스로 한평생 욕망의 고통에 끌탕 하지 말고, 영원토록 편안한 길인 '안락(安樂)하는 법'을 찾으라고 하신다.

'안락'은 '극락(極樂)'과 같은 용어이다. 극락의 어원인 산스크리트어 '수카바티(Sukhavati)'에서 나왔다. 수카바티는 '지극히 즐겁고 평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극락 이외에도 안락국(安樂國), 안락찰(安樂刹), 안국(安國), 안양(安養) 등으로 번역된다. 이때 '지극히 즐겁고 평안하다'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체험할 때 느끼는 법열(法悅)을 말한다. 법열은 감로(甘露)의 맛과 같아서 내 속의 모든 갈애와 욕망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오사카 호도지(法道寺)에 소장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내영도〉의 대세지보살 얼굴과 보관.(전체 그림은 지난 연재 참조)

그림②. 대세지보살 보관에는 보배병이 그려져 있으며, 이곳에서는 무변광이 뿜어져 나온다. 장엄 연기의 풍경이다.

아미타불옆 대세지·관음보살
부처 본성 '지혜·자비' 상징
부처와 달리 보살은 보관 써
대세지 보관엔 '무변광' 장엄

삼존, 삼신불, 삼불: 용어 혼란

〈아미타삼존 내영도〉를 보면 아미타부처의 협시로(정면에서 보아) 왼쪽에 대세지보살, 오른쪽에 관세음보살이 있다.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의 조합을 '아미타삼존'이라고 한다. '삼존(三尊)'이란 가운데 부처를 중심으로 좌우 양 보살이 협시하는 형식을 말한다.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한다. 불성(佛性)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하라 하면, 지혜와 자비이다. 그러니 지혜와 자비를 합치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을 두 성품으로 나누면 두 보살이 된다. 삼존은 삼위일체처럼 동일한 본질과 그것의 표현이다.

'석가모니 삼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석가모니 삼존'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로 구성된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자비'를 상징한다. 물론, 보현은 '행원'을 상징한다고 정의되는데, 이는 '행동하는 자비'를 말한다. 〈화엄경〉 말미에 '보현보살행원품'이 나오는 이유도, 여지껏 설한 장황한 자비의 보살행을 '원(願)을 세우고 행(行)하지 않으면' 즉,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불성의 두 축인 지혜와 자비를 보처보살(다음 생엔 부처가 될 보살)로 표현하여, '부처님 한 분과 보살님 두 분'으로 나타낸 것이 '삼존'이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상에서 삼존, 삼신불, 삼세불, 삼불의 용어 정의가 혼동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삼신불(三身佛)'은, 아시다시피, '법신·보신·응신' 세 분의 부처님을 말한다. 법신 비로자나불을 근본으로, 보신 노사나불이 자수용과 타수용을 겸하는 대(大)통합의 존격으로 제시되고, 응신으로 석가모니불이 현세에 나투신 부처님으로 표현된다. 대승불교의 대표 불신관인 삼신은 '삼신귀일(三身歸一)'로 결국 하나지만, 교화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나뉘어 표현된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풍미한 조합으로 '삼불(三佛)'이 있다. '아미타불-석가모니불-약사불'의 조합이다. 아미타불은 영가천도와 극락왕생을 약속하고, 석가모니불은 불교의 창시자이자 교단의 스승이다. 그리고 약사는 병을 치유해 주는 존격이다. 이 조합은 어떻게 구성된 걸까? 극심한 억불 정책에 왜란까지 겹쳐, 거대한 사원의 영토와 경제는 몰락 일로였다. 재건의 규모는, 예전의 전성기에 비해, 턱없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전처럼 개별 전각은 꿈도 못 꾸는 상황,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여 가장 중요한 부처님 세 분을 한 법당에 모시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신앙 대상, 병과 죽음을 관장하는 약사와 아미타, 그리고 시아본사(是我本師) 석가모니. 이는 숭유억불 정책과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이유에서 탄생하게 된 조합이다. 이를 '삼세불(三世佛)'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삼세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개념을 말한다. 그러니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세 분의 부처님'이란 뜻으로 '삼불'로 칭하는 것이 맞겠다. 실상, 삼세불의 예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보관, 광배의 본질적 의미

부처와 보살의 가장 큰 조형적 차이 중 하나는 머리 모습이겠다. 부처는 나발과 육계, 육계보주로 간단히 장엄하지만, 보살은 복잡한 보관과 치렁한 머리로 지극히 화려하다.

〈아미타삼존 내영도〉의 두 보살의 경우도, 관세음보살은 보관에 화신불이 있고 대세지보살은 보배병이 있다. 보관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뭉게구름 같은 서기(瑞氣)가 피어오르고, 연꽃들이 피어나고, 무수한 구슬(보주)들이 화생하고, 거기에서 찬란한 불꽃 모습의 빛이 형형색색 솟구친다.(그림1)

편의상 '보관을 쓰고 있다, 천의를 입고 있다. 영락을 걸치고 있다' 등으로 표현하지만, 경전을 보면, 사실상 '보살의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관 따로, 옷 따로, 영락 따로 아니라, 이들 장식들은 보살의 머리와 몸체에서 에너지가 나와 유기적으로 연기(緣起)하고 있는 것이다.

"보살은 중생구제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또 세상을 장엄한다(〈무량수경〉)"고 한다. 중생이 깨닫기 전에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외부에서 끌어다 쓰기 바쁘다. 하지만, 깨달은 성자들은 스스로 에너지와 빛을 발산하는 근원 그 자체가 된다.

"(깨닫게 되면) 태초의 신성한 원리와의 합일성을 경험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 장은 우주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인식 대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왕관 차크라가 완전하게 일깨워지면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업은 끝나게 되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연꽃이 만개하여, 말하자면, 머리 위에서 순수한 빛의 왕관을 형성한다."(샤릴라 샤라먼, 보도J. 베진스키)

〈관무량수경〉에 쓰여진 '자체발광(自體發光)'의 표현을 살펴보자.

"관세음보살 머리에서는 나오는 마니보주는 천관을 이루고, 그 속에는 화신불이 나타난다. 얼굴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백호에서는 8만 4천 줄기의 광명이 흘러나오고, 광명 줄기마다 헤아릴 수 없는 화신불이 탄생한다. 80억 광명의 영락, 각 구슬 속에는 온갖 장엄이 일어난다."

"대세지보살 몸에서 방사되는 원광(圓光)은 지름이 125유순이고 250유순을 비춘다. 자마금색의 광명은 지혜의 광명으로 삼악도의 고난을 여의게 한다. 500가지의 보배 구슬은 보배관을 이룬다. 각각 보배마다 보배꽃이 있고, 보배꽃은 500개의 꽃받침으로 되어있는데, 각 꽃받침마다 무수한 불국토가 나타난다. 온갖 종류의 광명을 품은 보배병에서는 '무변광(無邊光)'이 뿜어져 나온다."

'장엄 연기'의 풍경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010-5848-0189

사찰 맞춤형 이동식 전통하우스

전통성 경제성 佛事는 내구성 효율성

시대에 맞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으로 무장한 광명이 佛心으로 채워 드립니다.
요사채, 창고, 삼성각, 기도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컨테이너처럼 간편히 설치)
공간이 바뀌면 사찰내 환경이 바뀝니다.

특허제10-1957831호
특허제10-1957826호
디자인등록 제30-0599196호



광명 문의 전화 H·P 010-3401-5633 TEL 041)852-5163